

길

최윤선

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· 호스피스회장



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산에는 자연 그대로의 길이 나 있습니다. 말할 것도 없이 그 길은 자연이 키우고 자연이 보듬어 내는 산짐승이 내는 길입니다. 험한 곳은 비껴가면서 순리에 따르며 만들어진 길일 겁니다. 큰 짐승은 큰 짐승대로 그것들 살아가기 편하게 길을 냈을 것이고, 작은 짐승은 큰 짐승들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만든 길일 겁니다. 즉 그것들 나름대로 다니기 좋은 곳을 골라 다니다 보면 웅당 그것이 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.

사람이 산에 길을 내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어찌면 먼저 산짐승이 낸 길을 밟아가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낸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.

눈 씻고 찾아보아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하늘에도 새의 길이 있다 합니다. 저를 낳아준 어미 새가 날았을 하늘의 보이지 않는 길을 본능적으로 배워 새끼 새도 그 길을 밟아가는 것이겠지요.

우리말의 '길'이 공간과 공간의 연결을 뜻하는 동시에 사는 방법, 즉 존속하기 위한 지혜를 뜻하는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.

돌이켜 보면 임종을 준비하는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도 마음과 마음 사이에 무수히 많은 길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걸 알게 됩니다. 무언가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어야지 결심하여 애쓰고

노력하던 중에는 오히려 그 많은 길들이 연결과 소통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곤 했던 것 같습니다. 여러 님들의 앞선 임종이 너무 선불리 앞서지 말라고 주눅이든 어깨를 다독여준 뒤에야 더불어 함께 임종을 맞는 조용한 기다림을 배우고 있습니다. 그이들의 손이 닿을 거리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속삭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을 먼저 배웠더라면 사람 사이의 저절로 난 길을 미처 못보고 애달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

말기암 환자들이 겪는 복잡하고 심한 통증의 조절을 위해 효과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임종을 맞이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영혼과 마음의 고통스런 짐을 벗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에 대한 앎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것 같습니다. 어찌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글이나 말로는 표현되지 못하는 무수한 교감의 길들이 연결되어야 조금이나마 짐을 더는 수고를 함께 할 수 있겠지요. 목적하는 바에 이르기 위한 극복의 과정이 아닌 존중하고 기다리는 묵묵함이 더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

지난 달에 무척이나 속상한 소식을 한 가지 듣게 되었습니다. 집에서 돌봄을 청하는 재가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 열정으로 일하던 다른 병원의 호스피스 코디네이터 겸 방문간호사 였던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사표를 내고 휴연 여행을 떠나버린 사실이었습니다. 주말에도 늘 전화 상담과 방문으로 분주

하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 선생님이 속한 호스피스 팀에서는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느라 분주하겠지만 부디 무엇이 그토록 그이를 소진케 했는지 꼭 되돌아 보아주었으면 합니다.

말기 암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 과정이 그 어느 직업, 직종 보다 보람 있는 일이라는 자부심도 좋지만 어느 순간 모든게 다 소진되고 심한 무기력증에 빠질 위험 역시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적당한 휴식이

보장되고 재충전의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하려는 노력이 모든 호스피스 팀 마다 있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그 섬김의 과정을 함께 하는 팀원들 간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'길'을 늘 열어 놓아야 하지 않을까요? 무수히 많은 길들이 열리고 보듬어지는 한 홀로 지치고 소진되는 일들은 피할 수 있겠지요.

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 소중히 다루는 지혜가 늘 아쉽습니다.

